

북한,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파리에 인공기 내걸린다

여자 기계체조 안창욱·복싱 방철미 등 6개 종목서 14명 출전 북한 선수단 확실한 규모는 올림픽 개막 직전이나 공개될 듯

8년 만에 하계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이 다음달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 몇 명의 출전 선수를 내보낼지 관심이 쏠린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국 유입을 막고 선수를 보호하겠다고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결장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올림픽 헌장을 북한이 어겼다고 2021년 9월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징계 기한이 2022년 말로 끝나면서 NOC 지위를 되찾은 북한은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대회 이래 5년 만에 아시안게임 무대에 다시 섰다.

올해에는 8년 만에 하계 올림픽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늘 그렇듯 파리 올림픽 북한 선수단의 정확한 규

모는 대회 개막 직전이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올림픽은 현지시간 7월 26일 개막한다.

19일 현재 종목별 올림픽 출전권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6개 종목에서 14장의 출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체조 1명, 육상 1명, 복싱 2명, 수영 다이빙 2명, 레슬링 5명, 탁구 3명이다.

먼저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기계체조 2관왕에 오른 안창욱은 국제체조연맹(FIG) 종목별 올림픽 도전자 랭킹에서 도마 최소 2위를 확보해 파리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보편성 쿼터' 제도로 남녀 마라톤의 한일통도 파리행 티켓을 잡았다.

세계육상연맹은 올림픽 출전권 배분의 양대 축인 기준 기록과 세계랭킹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뛸 수 있도록 '보편성 쿼터'를 마련해 세부 종목 어느 하나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나라에 출전권을 준다.

대한육상연맹의 관계자는 "세계육상연맹의 보편성 쿼터로 한일통이 올림픽 출전 선수로 등록됐다"고 확인했다.

여자 복싱의 방철미(54kg급)와 원은경(60kg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북한 선수들이 인공기를 흔들며 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급)은 파리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해 출전권을 확보했다.

다이빙의 김미래-조진미는 올해 2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아직 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국가

중 상위 4팀'에 주어지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 1장을 얻었다.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리세웅, 여자 자유형 53kg급 최효경·62kg급 문현경·68kg급 박솔금은 아시아 쿼터 경쟁에서, 여자 자유형 50kg급 김선향은 세계 쿼터 경쟁에서 각각 올림픽 티켓을

따냈다.

탁구 리정식과 김금영 등 3명은 혼합복식 세계예선전, 동아시아예선전에서 출전권을 획득했다. 파리 무대에 서는 안창욱, 방철미, 문현경, 한일통은 지난해 북한의 10대 최우수 선수에 뽑힌 간판 체육인이다. /연합뉴스

우하람·김수지, 첫 올림픽 다이빙 메달 향해 '입수'

'도쿄 4위' 우하람 "준비 잘돼있다" 김수지 "도하에서 탄 메달 자극돼"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경영 대표팀이 '황금 세대'를 구성해 많은 이의 주목을 한눈에 받는다면, 같은 수영 종목인 다이빙은 조용히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다이빙 선수는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 김영택(제주도청), 이재경(인천광역시청), 김수지(울산광역시체육회), 김나현(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5명이다.

우하람과 이재경은 각각 남자 3m 스프링보드, 김영택은 10m 플랫폼에서 입수를 준비한다. 또한 김수지는 3m 스프링보드, 김나현은 10m 플랫폼에서 파리의 공중을 헤엄친다.

이들 가운데 우하람과 김수지는 한국 남녀 다이빙 대들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다.

우하람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역대 한국 다이빙 최고 성적인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메달만 10개(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한국 다이빙 선수 가운데 가장 많다.

우하람은 지난 1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미디어데이에서 "올 초까지는 부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이제 확실히 부상에서 벗어났다. 파리에서는 이전 대회들보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우하람이 '올림픽 4위'라는 훈장을 따낸 도쿄 올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과 김수지가 18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림픽은 오히려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는 "도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하고, 준비 과정도 최악이었다. 이제껏 해왔던 것으로 성적이 난 것"이라며 "지금은 몸도 훨씬 좋고, 기술적으로도 준비 잘됐다. 걱정 없다"고 자신했다.

김수지는 한국 다이빙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보유했다.

2019년 광주 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다이빙 선수 최초의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2월 도하 대회에서는 3m 스프링보드와 3m 혼성 싱크로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도하 대회 최고 성과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 3m 스프링보드에서 시상대에 올라간 것이다.

"도하에서 메달을 따서 자극됐다. (올림픽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김수지는 "최근 광주에서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제껏 연습한 걸 토대로 다듬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몸 상태도 괜찮고, 방향도 괜찮다. 좋은 성적 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파리에서는 3m 스프링보드에 기다린다. 김수지는 "3m 스프링보드는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종목"이라며 미소를 보였다. /연합뉴스

전남 근대5종 꿈나무, 전국대회서 금빛 활약

전남체고 김영하, 장성 사창초 이태윤·황채원 금...10개 메달 획득



왼쪽부터 레이저런 사격을 하고 있는 전남체고 김영하, 장성 사창초 이태윤·황채원·이강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국 근대5종 대회에서 전남 근대5종 꿈나무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남우체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4 해남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 및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전남 근대5종 선수단은 총 10개(금3, 은2, 동5)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고 김영하는 남자 고등부 4종 개인전에서 121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의 친동생인 김강영과 조민우와 함께 남자 고등부 릴레이에 나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장성 사창초의 '쌍둥이 형제' 이태윤·이강윤은 남초부 2종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했고, 사창초 황채원은 여초부 2종 개인전에

서 금메달을 따냈다.

해남동초 김태린·채지민·이한결은 여초부 2종 릴레이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전남도청팀은 공화영·김선진이 팀을 이룬 여자 5종 단체전에서 2233점을 획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릴레이에선 공화영·김선진·민성진이 동메달을 합작했다.

여자 5종 개인전과 남자 4종 개인전에서도 공화영과 이은석은 동메달을 뒀다. 전남근대5종연맹 전희섭 회장은 "우리 전남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획득해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남부대, 전국사격대회서 맹활약

센타화이어 권총 등 메달 휩쓸어

남부대 사격팀이 최근 나주종합사격장에서 끝난 '제4회 흥남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에서 활약했다.

이번 대회 스탠다드 권총 남자 대학부 개인전에서 남부대 김민수와 김도엽이 각각 569.0점, 568.0점의 기록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며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스탠다드 권총 단체전에서도 김민수·김도엽·기민수·송민섭이 나서 1692점으로 1위에 자리했다. 센타화이어 권총 경기에서는 김도엽이 580.0점으로 남자 대학부 개인전 1위, 김도엽·김민수·오승현·송민섭이 1706점으로 단체전 1위를 차지했다.

여자 대학부에서는 김나연이 공기소총 개인전 2위, 김소현이 3위를 기록했다.

김나연·김소현·손진주·김효빈은 여자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884.9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채은·김성은·김가는·김예진은 여자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했다.

사격팀 김순희 감독은 "선수들이 믿고 열심히 따라주다 보니 경기력이 발전하고 성적도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주면 하나 되는 분위기에서 훈련해 국제대회에서도 활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이창훈 개인전